

전남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74억 원 확보

농식품부 공모에 3곳...수급 조절 등으로 농가소득 향상 기대

전남도는 2023년 농식품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공모사업에 전남 3개소가 선정돼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수급 조절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국비 25억 원 포함 74억 원이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저장·출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농산물

상품화·균일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향상과 출하시기 조절, 시장교섭력 확보 등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해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공모에 나서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전국 15개소를 선정했다.

전남에선 무안 전남서남부채소농협, 구례 농업회사법인 ㈜농농산, 신안 목포신안군농협조공법인이

선정됐다. 무안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은 전국에서 가장 큰 55억 원 규모의 사업에 선정됐다. 스마트 저온저장고, 칸마늘 색채선별기 등을 도입해 양파, 마늘 등의 저장 품질 향상을 통한 채소 수급 안정에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4월 공모에 확정된 농식품부 기술개발 연구사업인 '스마트

농산물 유통저장기술 개발사업'과 연계해 첨단화된 산지유통센터를 구축, 국내 노지채소의 물류자동화 체계를 선제적으로 이끔 방침이다. '스마트 농산물 유통저장기술 개발사업'은 농산물의 입고·관리·선별·포장·출고·반출 등 전 과정을 자동화 처리하는 사업이다.

구례 농업회사법인 ㈜농농산은 14억 원을 들여 간편식 밀키트 생산을 위한 전처리 세척 절단시설, 농산물 자동계량포장 설비 등을 확충

한다. 신안 목포신안군농협조공법인은 5억 원을 들여 저온저장고를 보수하고, 칸마늘 생산 자동화 시설, 색채 선별기 등 기존 시설을 현대화해 농산물 처리물량 확대 등 시설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그동안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건립과 현대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는 기반을 갖췄다"며 "앞으로도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과 수급 안정, 농가 소득 향상 등을 위해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나주배원예농협에 수출배선별을 위한 57억 원 규모의 산지유통시설을 신축하는 등 지난 1992년부터 총 97개소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지원했다.

/윤규진 기자

현대자동차, 중형 SUV '2023 싼타페' 출시



싼타페는 현대차의 대표 중형 SUV로, 이번에 출시한 2023 싼타페는 주요 안전사양을 전 트림 기본사양으로 탑재하고 고객 선호도가 높은 옵션으로 구성된 신규 트림을 추가하는 등 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양 구성이 특징이다. /광주시 제공

현대자동차가 싼타페의 연식변경 모델 '2023 싼타페'를 출시하고 20일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

싼타페는 현대차의 대표 중형 SUV로, 이번에 출시한 2023 싼타페는 주요 안전사양을 전 트림 기본사양으로 탑재하고 고객 선호도가 높

은 옵션으로 구성된 신규 트림을 추가하는 등 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양 구성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기본 트림인 익스클루시브부터 ▲다중 충돌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1열 센터 에어백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안전차차 보

조 ▲후석 승객 알람 등 안전사양을 기본화하고, 선택사양으로 운영되던 ▲LED 리어 콤비램프를 프레스티지 트림 기본사양으로 편성해 상품 경쟁력을 높였다.

또한 ▲1열·2열 이중접합 차음유리 ▲퍼들램프 ▲블랙 유광 필라가

나쉬 ▲12.3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운전석 4WAY 림버서포트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 ▲디지털 키 등 기존 싼타페 고객 선호 옵션 사양들을 한데 묶어 편성한 프레스티지 초이스 트림을 새롭게 선보였다.

최상위 트림 캘리그래피에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등을 기본으로 편성해 주차 편의성을 제고했다.

판매가격은 가솔린 2.5T 모델 ▲익스클루시브 3천252만원 ▲프레스티지 3천478만원 ▲프레스티지 초이스 3천667만원 ▲캘리그래피 4천7만원이고, 가솔린 1.6T 하이브리드 모델 ▲익스클루시브 3천539만원 ▲프레스티지 3천760만원 ▲프레스티지 초이스 3천949만원 ▲캘리그래피 4천284만원이다. (※ 2WD, 세제혜택 후, 개별소비세 3.5% 기준)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의 대표 중형 SUV 싼타페는 가족을 위한 차를 고려하는 고객층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이라며 "2023 싼타페는 고객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상품성 강화로 국내 SUV 시장 최강자의 입지를 공고히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광주시-NHN,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나서

광주 NHN 아카데미 개소, 7개월 과정 무상교육

광주시는 20일 조선대학교 IT 융합대학에서 NHN 아카데미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NHN 아카데미는 광주시가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운영사업자인 NHN과 함께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광주 NHN 아카데미는 NHN 현업 개발자가 직접 강의를 맡고, 강의과정은 신입직원 교육기반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기업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필수 개발자 양성과정을 바탕으로 개발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고급 Java과정(4주) ▲Java 백엔드 개발과정(16주) ▲NHN 인증과정(8주)로 구성돼 있으며 IT계열 4학년 학생 혹은 졸업 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3단계, 7개월 과정으로 운영된다.

광주 NHN 아카데미는 조선대와 함께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 서 만 29세 이하 청년에게 전액 무료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NHN은 아카데미 광주 교육을 통해 지역 소프트웨어 전문인재를 매년 60명씩 양성하고, 2023년 상반기에 광주에 설립 예정인 연구개발 센터를 통해 매년 30여 명씩 18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성적우수자들은 NHN 계열사, ㈜티맥스인공지능개발센터, ㈜여보야 외 46개 기업에 취업을 연계한다.

광주시와 NHN은 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연구개발은 물론 지역기업과 협력해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창출해 지역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광주에 머무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최태조 시 인공지능정책과장은 "기관과 기업, 대학이 협력해 기업이 요구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NHN 아카데미 김재우 학장은 "NHN이 쌓아온 IT 분야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자연과 역사를 품은 시간여행

사계절이 아름다운 화순

세랑지의 봄

연둔리숲정어의 여름

화순적벽의 가을

구봉암의 겨울